

現代教育과 學校圖書館

프레데릭 R. 사이퍼어트
金 斗 弘 譯

〈譯者註〉 原題目이 「中學校圖書館은 學習調查의 技術을 發達시킬 수 있다」(The junior-high-school library can develop investigative skills)라고 되어 있는 이 글은, The Clearing House誌에 掲載되었던 것을 翻譯한 것이다. 著者 Fredrick R. Cyphert 氏는 美國 California州 Torrance統合教育區의 教科課程 諮問委員이다.

學校圖書館과 學習活動이 어떻게 連結되어야 할 것인가? 하는 問題는 이제 우리의 重要 關心事로 되어있거니와, 이 글은 이러한 問題에 關하여 많은 示唆을 던져주고있다.

現代의 教育計劃은 問題解決, 研究 및 調查의 技術을 크게 重視한다. 急變하는 現世界에 있어서, 學生들에게 一定한 數의 豫想되는 應答을 要求하는 것만으로서는 充分하지 못하다. 이제 우리는 오늘날의 靑少年에게 우리가 줄 수 있는 最強의 武器는 그들이 逢着하는 諸問題를 解決하는 데 必要한 技術과 能力이라는 것을 分明히 알고 있다.

學校圖書館은 過去의 寶貝와 未來의 約束으로 가득 차 있다. 그러므로 學校圖書館은 現代의 이같은 教育方法(學生 스스로 問題를 調查·研究하는)을 可能하게 하는 열쇠의 구실을 할 수 있는 것이다. 不幸한 일은, 圖書館의 重要性이 이같이 增大하여 가고 있음에도 不拘하고 大概의 學校가 이 「머티어리얼·센터」(學習資料 센터)를 賢明하게 活用하고 있지 않으며, 따라서 教科課程 展開에 있어서의 그 功獻을 最小限으로 줄이고 있는 實情이다.

最近에, 우리 東部の 어느 重要 州에 있어서의 中學校圖書館 運營計劃의 實踐 狀況을 調查한 結果, 여러 不適當한 면이 들어 나고 있다. 即, 大概의 學校가 그 學生들에게 어떤 形式의 計劃된 圖書館教

育을 實施하고 있기는 하지만, 大部分의 境遇, 圖書館을 利用하는 要領을 學生들의 다른 學習經驗과 分離시켜서 가르치고 있는 것이다. 學生들은 一週일에 한 번씩 圖書館에 配置되어서 圖書分類法·카아드 目錄·圖書館道德 및 一般參考圖書等 問題를 다룬다. 教授方法은 주로 圖書館 日常實務에 關한 刊에 막은 듯한 說明을 包含하는 講義와 暗誦과 質問으로 構成되어 있다.

圖書館 利用要領을 가르침에 있어서, 그와 같은 形式的인 方法을 쓰는 것은 「무술·복」(競技規則書)을 통하여 「메스킷·분」의 基本原理를 가르치려는 것과 같이 非現實의이 아니겠는가? 圖書館 利用要領은 學習자가 그 要領의 必要性을 分明히 깨달을 수 있는 實際의 狀況에 부딪쳐서, 實地로 應用함으로써 가장 效果 있게 習得할 수 있지 않겠는가?

大部分의 司書, 教師 및 學校管理者들은 學生들이 學校圖書館의 利用에 익숙하여야 한다고 믿고있다. 그러나, 理解라는 것은 賢明한 利用에서 일어난다는 概念을 그들은 아직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現代教育에 있어서 極히 重視되고 있는 問

題解決의 能力은, 教授目標, 學習經驗의 內容 및 이 能力을 增進시키는 教授資料의 合理的 計劃을 爲하여, 教師와 學生과 司書教師가 相互協調하는 學校에 있어서 가장 效果的으로 發達시킬 수 있는 것으로 안다.

다음 實例은 學習調查의 要領을 가르치기 爲하여, 한 學校가 어떠한 組織을 가질 것인가를 說明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 中學校에 있어서는, 每學年度의 學習內容을 一聯의 相關된 問題(例를 들면, “사람은 어떻게 生計를 세우는가?” 하는 따위)를 中心으로 編成한다. 各 問題의 單元設定을 爲한 專門의 計劃樹立은 2名의 主務教師, 1名의 數學教師, 1名의 地理學教師 및 司書教師가 參與하는 “little school”이라는 會合에서 着手한다. 이 計劃이 끝나서, 學生들이 實際로 問題에 부딪치고 있는 동안, 司書教師는 適切한 情報의 索出法을 指導하기 爲한 案内者로서 그들의 學級授業에 參加한다.

한편, “little school”에 關聯하는 教師들은 教授法과 學習目標을 調整하기 爲하여 每週 會合을 거듭한다. 이 會合은 司書教師로 하여금 圖書館에 對한 利用要求量을 豫想하게 하고, 融通性 있는 利用配當表를 作成할 수 있게 하며, 그렇게 함으로써 모든 學級과 小分團과 그리고 個個의 學生이, 追加的인 情報을 얻기 爲하여 圖書館을 訪問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圖書館 訪問時間의 一部는 學生과 教師가 必要로 하는 調查技術을 研究하는 데 使用되기도 한다. 그 學年度가 經過함에 따라, 그리고 한 問題의 解決이 끝나고 보다 넓은 領域을 調查하게 됨에 따라, 司書와 教師 및 學生들은 다 같이 그들의 問題解決術의 長短點을 確實히 把握하게 된다.

學生들에게 調查의 能力을 길러 주어야 할 必要性에 立脚하여, 教師와 司書는 스스로 몇 가지 質問을 던져 보아야 한다. 이들 質問 가운데는 다음과 같은 것이 包含될 것이다: 教師陣은 學生들에게 이들 技術과 能力을 길러 주어야 할 必要性을 確信하고 있는가? 이들 技術과 知識은 完全히 理解되고 있는가? 教師들은 學生들로 하여금 教師의 支配와 思考와 才幹에 依存하게 하는 代身에, 學生들의 自立精神과 責任感의 成長을 爲하여 그들의 努力을 傾注하고 있는가? 教師間과 그리고 司書와 教師間의 連絡系統이 分明하여서, 各者가 他人의 하는 일을 알고 있는가? 圖書館資料는 教師의 要求와 教授目標을 分析한 後에 司書에 依하여 選擇되고 있는가? 圖書館 利用時間表는 學生들이 必要할 때에 찾아 갈 수 있을만치 融通性 있게 짜여져 있는가? 司書나 教師는 調查技術을 가르칠 때, 實際의인 狀況과 結付시키고 있는가? 學生들이 그들의 能力에 알맞는 問題를 다루고, 또 그들의 能力에 알맞는 技術을 기를 수 있도록 按配되어 있는가?

時時刻刻으로 變遷하는 오늘날의 世界에 있어서, 우리들의 子女들이 무엇을 생각할 必要가 있을 것인가에 對하여,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바를 強要할 수도 없으며, 또한 그에 關하여 합부로 豫測할 수도 없는 것이다. 기껏해야 우리는, 그들에게 生活戰線의 여러 挑戰者를 다루는 方法을 가르쳐 줄 수 있을 뿐이다. 이 課業을 遂行하기 爲하여서는, 學習의 原理에 關하여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知識을 動員하여야 하며, 圖書館과 教科課程을 效果的으로 連結시켜야 하는 것이다.

(筆者 慶南高校司書教師)